

## 붉고 푸른 장엄 세계

불교중앙박물관  
5월14일~8월16일  
‘불전장엄’ 특별전



진주 청곡사 명경대



안성 칠장사 원패

법당을 장엄하던 불전장엄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화법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오는 14일 오후3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16일까지 3개월간 ‘불전장엄(佛殿莊嚴), 붉고 푸른 장엄의 세계’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보물 1798호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좌상, 보물 1397호 영국사 영산회상도를 비롯해 7점의 보물이 전시된다.

특별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부처님을 모신 집 불전(佛殿)’ 두 번째는 ‘불세계를 장엄하다 불전장엄구(佛殿莊嚴具)’ 세 번째는 ‘불전의 확장 야외의식법회’이다.

첫 번째 전시장에서는 불전의 의미와 구성을 이해하고 삼단의 체계와 관련된 불화들이 전시된다. 불전은 부처님을 봉안한 곳으로, 사절에

서 가장 중심이 되는 전각이다. 불전 내부는 삼단으로 구성돼 있는데 불보살을 모신 상단, 명부 혹은 신중을 모신 중단, 영가단인 하단 등이다. 여기서의 상단에 모셔진 흥국사 소조석가여래좌상과 영국사 영산회상도 외에도 중단에 봉안했던 지장시왕도, 삼장보살도, 하단을 장엄하는 감로도 등이 전시된다.

두 번째 전시장은 다양한 불전장엄구와 장엄구들마다 갖는 의미를 알 수 있는 코너다. 상단 불상 좌우에 세워진 불교 패를 비롯해 불성을 비춘다는 뜻의 명경(明鏡), 발원문이나 소문을 넣어둔 소대(疏臺) 등이다. 특히 안성 칠장사 원패는 현존하는 유일의 조선 전기 원패로, 가운데 비워져 있어 시대마다 다른 원을 써 붙인 것을 알 수 있다. 중요민속문화재 244호인 순천 선암사 용문자수탁의(龍紋刺繡卓衣)

는 조선 후기 조성된 것으로 야외의식 때나 실내 불단을 가릴 때 사용된 것이다. 폭 1.2m, 길이 4m에 달하는 탁의는 용문양의 지수가 뛰어나다.

수륙재 같이 야외에서 열린 법석 때 사용된 불화와 번, 연(簾)도 전시된다. 남양주 불암사 감로도도 안동 봉황사 오방제위, 사직사자도, 문경 대승사 칠여래 사보살도, 밀양 표충사 불연 등이 대표적이다.

불교중앙박물관 사무국장 도성삼님은 “불교공예품을 대표하는 불전장엄구를 총체적으로 모아 전시한 것은 이번 특별전이 처음”이라며 “다양한 장엄구들을 정리하고 의미를 새겨 보는 자리에 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함께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경 기자 eonald@ibulgyo.com

## 법당에서 등 만드는 아늑한 제주양로원



하정은기자의  
현장에서  
tomato77@ibulgyo.com

“내가 죽으면 2층 큰법당에서 원장 스님이 재를 지내준다고.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가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자비원의 제주양로원 2층에는 큰법당이 있다. 66㎡(20평)에 가까운 넓직한 법당이다. 양로원에 살고 있는 40여명의 어르신들은 날마다 법당에 올라가서 부처님전에 큰절을 하면서 ‘오늘도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인사를 올리고 법당 곳곳에 먼지 한 톨 앓을세라 청소하기 바쁘다. 법당 관리자 이른바 법당보살 소임을 맡고 있는 50대 후반의 젊은(?) 여성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법당을 참 좋아하신다”며 마음이 울적하거나 가슴 아픈 일이라도 생기면 법당에 올라와 평정심을 되찾곤 한다고 귀띔했다. 1957년 개원한 제주양로원은 제주도 최초 노인보호시설이다. 1990년대 초반 현재주시 도평동으로 이전하면서 운영사찰의 관음사 도움을 받아 법당이 조성됐다. 제주양로원에는 큰 법당뿐만 아니라 앞마당에 높이 2m가 넘는 관음보살입상도 세워져 있다.

70~80세 어르신들은 지루한 낮 시간엔 TV를 보면서 오후 한때를 보내기 일쑤지만, 대다수 어르신은 법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거나 바지런한 손놀림으로 청소를 한다. 지난 4월29일에는 부처님오신날을 한 달여 앞두고 법당에는 연등을 만드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이 중 한 분이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 불편한 몸 이끌고 절에 가서 등을 만들 꿈이라고 꾸겠느냐”고 말하자, 옆에 또다른 어르신은 “우리는 복이 많아서 부처님과 함께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등을 자신을 봉양하는 자식을 향한 원망이 아닌,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담아 법당을 수놓는다. 정부의 복지방침에 따라 요양원이 늘고 양로원이 사라지는 요즘, 법당까지 구비된 양로시설이 마냥 반갑고 훈훈하다.

고양=박인택 기자

## 행복바라미 모연 바람 일으킨다

날마다좋은날 문화대축전 개막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규모 거리모금 캠페인이자 자비문화와 전통문화가 어우러지는 문화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식을 갖고 본격적인 모연활동에 들어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은 부처님오신날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잊혀져가는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문화축제의 장이자 자비나눔을 실천함으로써 상생과 사회적 공헌을 위한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날마다 좋은날은 오는 15일까지 전국 140곳에서 모금함을 설치한 뒤 대규모 거리모연을 펼친다. 오는 10일까지 부산과 대구 등 주요도시 10곳에서 지역문화제를 개최하며 모연활동과 더불어 체험 및 전시를 통해 우리의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린다. 2013년에는 1억2000여 만원, 2014년에는 1억1000여 만원을 모금해 209명과 259명에게 생활비와 의료비, 교육비 등으로 각각 지원했다.

지난 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식은 식전공연으로 참가대중이 함께하는 강강술래를 펼친 뒤 본행사, 인디밴드 휴먼레이스 등이 펼치는 축하문화공연 등으로 진행됐으며 1일과 2일 이틀동안 전통놀이체험마당도 펼쳐졌다.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정갑윤 전 국회 정각회장, 정세균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까지 참석해 축하와 행복바라미 모금 단말기를 시연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이번 축전을 통해 전하는 행복의 씨앗은 작지만 행복과 나눔의 싹을 키우고 희망의 꽃을 피울 것”이라고 치하했다. 이기흥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행복바라미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건강한 기부문화 정착과 동시에 온 국민이 하나가 되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써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박인택 기자 parkintak@ibulgyo.com



지난 1일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식에서 정갑윤 국회 부의장이 모금 단말기를 시연하며 나눔문화 확산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 개원 10주년 법요식이 데뷔 무대

봉축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5>

동국대 일산병원 연꽃누리합창단



동국대 일산병원 연꽃누리합창단 이 첫 데뷔무대를 앞두고 지난 4월29일 4층 중강당에서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4월29일 오후5시30분이 넘어가자 동국대 일산병원 4층 중강당으로 직원들이 하나 둘 모여들었다. 의사가온과 간호사복, 수술복, 정장 등 복장은 제각각이지만 공통된 한 가지가 곧바로 눈에 띄었다. 모두가 한손에 악보집을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오는 25일 동국대 일산병원 대강당에서 열리는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음성공양을 올릴 ‘연꽃누리합창단’이다.

지난 2014년 6월 창단한 연꽃누리합창단은 이번 봉축법요식에서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음성공양을 올리는 데뷔무대를 갖게 된다. 1, 3째 주 수요일 오후5시30분부터 7시까지 연습하던 합창단은 봉축법요식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 연습하며 도반들과 화음을 맞춰 나갔다. 연습 참석률과 노래 기량을 고려해 60명의 회원 중 25명이

법요식 무대에 오르는 영광을 차지했다. 첫 무대 데뷔에 맞춰 단복도 마련한 연꽃누리합창단은 봉축법요식에서 6~7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귀의, 청법가, 사후서원 등 불교의식곡과 연꽃, 꿈길에서, 진주조개잡이, Scarborough Fair(스카브로의 추억) 등이다. 김성민 지휘자는 소프라노와 메조소프라노, 알토 등 각 파트별로 먼저 연습한 뒤 전체가 화음을 넣어 부르며 수업을 이어갔다.

“다들 배고픈 시간이었지만 ‘연꽃’이 어둠을 걷어내며 세상을 밝히듯 보다 힘차게 노래를 불러야 해요. 특히 소프라노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메조소프라노는 앙칼지게 불러야 해요.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불교의식곡과 찬불가, 가곡, 오페라곡 등 장르가 다양한 만큼 지휘자는 각 노래마다 특성에 맞게끔 합창단을 이끌어갔다. 노래연습 중 합창단원이 지

휘자에게 갑작스레 질문을 던졌다. “악보를 들고 무대에 오르나요?” “당연히 악보가 없지요. 가사를 다 외워야 해요. 가사와 화음이 맞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학습할 겁니다.” “큰 일 날네요.” “단합도 할 겸 학습하는 것도 좋겠는걸요.(웃음)” 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은 봉축법요식에서 병원 동료는 물론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첫 데뷔 무대를 갖는 설렘과 긴장감을 웃음으로 날려버린 뒤 연습에 매진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법당 지도법사 증취스님은 “하루종일 업무에 시달리며 피곤할텐데도 첫 데뷔 무대인데다가 병원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봉축법요식 공연이라는 큰 행사를 앞둔 만큼 다들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면서 “맛있는 무대를 선보인 뒤 전국불교합창제에도 출전하는 등 점차 활동무대를 넓히며 실력을 쌓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양=박인택 기자

창업 20년 감사기획

## 인도성지순례 조기확보 좌석 예약할인!

▶ 6월 20일 까지 (20만원~10만원 할인)

정품성지순례 / 창업20년, 불교전문여행사로 함께한 저희의 보람입니다.  
덕 높으신 스님과 불자님의 성지순례에 저희 임직원 모두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 인도 8대성지순례 10일 ₩2,550,000~

2015년 - 10월 16일 (음 9월 4일)

11월 13일 (음 10월 2일)

2016년 - 2월 24일 (음 1월 17일)



긴급모객

실크로드 핵심 7일

돈황 / 유림굴 / 투르판 / 우루무치 / 천산 7일

- 5월 27일 출발 확정 1,750,000 (비자비, 팁 포함)
- 인원: 20명
- 마감: 5월 11일 까지



▶ 인도 8대성지+아잔타, 엘로라석굴 12일

2016년 - 2월 24일 (음 1월 17일) ₩2,950,000~

※이외 출발일 조기예약 특별할인 적용 문의 상담합니다.  
※공통: 인솔자, 인도네팔비자비, 팁, 생수비, 한식요리사를 포함한 정품성지순례입니다.



(주)성산여행사 Since 1995년

대표전화 02)720-0111

주소: 110-170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51, 룸비니빌딩 401호  
홈페이지 www.bbstour.com 메일 bbstour@hanmail.net  
팩스 02) 738-4337 농협: 301-0720-0111-71(성산여행사)

광복70주년

##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2015년 5월 16일(토)

불기 2559

오후 6시~9시

광화문 광장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수락산 약사암·일심선원  
사부대중일동